



# 「2023학년도 시험대비」 이선화 교육학 모의고사 해설 및 모범답안(6)

| 이선화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 지난호에 이어 ... >

## 예시 개요

<p>호이와 타터(W. K. Hoy &amp; C. J. Tarter)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규범모형에 근거하여 볼 때, 밑줄 친 부분의 상황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맞는 교사의 역할을 제시, 경영적 측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분위기 형성 방안 1가지 제시 [3점]</p>	<p>도입 : 큰 변화와 혼란 속에서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p> <p>호이와 타터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규범모형에 근거한 밑줄 친 부분의 학생 참여 방식[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학습의 종류나 참가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고, 전문성이 없는 관련성 한계영역에 해당함</li> <li>- 관련성 한계영역에 적합한 구성원 참여방식은 '때때로,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li> </ul> <p>교사의 역할[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 교사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li> <li>- 교육자는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결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li> </ul> <p>경영적 측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분위기 형성 방안 1가지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과 같은 경영자가 교사들을 신뢰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수 활동을 보장</li> <li>- 경영자가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학교 경영에 적극 반영</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시켜 인화적인 풍토를 형성</li> <li>- 경영자가 교사들을 성숙한 존재로 대우하며 신뢰 가능한 인간관계를 형성</li> <li>-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적재적소에 활용</li> <li>-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정기적 회의 등)를 제공</li> <li>- 개방적 풍토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li> </ul> <p>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학교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함께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li> <li>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의 참여기준에 근거한 접근과 학교 분위기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li> </ul>
<p>결론</p>	<p>'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학교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탈학문적 통합의 실현 방안과 교과 통합의 가치를 살펴보고, 과정중심평가에서 피드백 제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평가의 내용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확인하였다.</p> <p>그리고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블렌디드 러닝 및 플립드 러닝을 비교 정리한 후, 의사결정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학교 분위기 형성 방안을 살펴보았다.</p> <p>위기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p> <p>코로나 이후 우리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gosiplan.com</p>

## 이선화 교육학 4월 공개모의고사 모범답안

제공: 이선화 교수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 이후, 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사회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컸던 각급 학교들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교육적 도약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학교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방법, 교육행정의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생태전환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 내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송 교사가 언급한 탈학문적 통합을 생태전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 생태전환교육의 다양한 주제들 중,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교과와 활동을 통합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 생태전환교육의 세부 주제들을 학습할 때,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며 교과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 통합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먼저 교과들 간의 관련성 파악에 도움이 되고, 교과 학습과 생활과의 연관성을 향상시켜 교과 학습의 의미를 삶과 관련지어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대개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동기가 향상되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위해 학교는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을 학생 주도적 교과 통합이 가능한 탈학문적 통합을 활용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삶과 관련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교과

통합을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 학교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된 학업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평가적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며 적절히 제공되는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피드백 제공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학습 목표와 연계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현재 성취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목표와 현재 수행과의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 조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피드백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어서 김 교사가 강조하고 있는 평가는 준거참조평가인데, 준거참조평가에서는 타당도, 그 중에서도 특히 내용 타당도를 중시한다. 이러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먼저 평가문항들을 검사내용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통해 검증을 받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문항들을 이원분류표에 근거하여 제작하여 내용 타당도를 높일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실시한 온라인 수업의 병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교수학습과 평가를 통합하는 과정중심평가의 실행과 목표 중심적 평가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평가를 통한 학업성취 향상이 가능하여, 학업격차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수방법 분야에서는 더욱 큰 혁신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으로는 먼저 협동학습이 있다. 소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동학습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협동기술을 함양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이 가능하여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학습의 활용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팀을 이루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두 교육방법의 공통점은 두 기법 모두 온라인 교육과 면대면 교육을 함께 활용하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블렌디드 러닝이 온라인 교육과 면대면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이 특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사전 학습 형

태로 온라인 교육을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이후 심화 활동을 면대면 교육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 코로나를 경험하며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을 충실히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과 면대면 교육의 통합을 실현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더 나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큰 변화와 혼란 속에서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제시문의 밑줄 친 부분의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호이와 타터의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체험학습의 종류나 참가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고, 전문성이 없는 관련성 한계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자는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결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듯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전반의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돕는 경영적 측면의 노력으로는 교장과 교감과 같은 학교 경영자가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학교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풍토가 형성된다면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함께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의 참여기준에 근거한 접근과 학교 분위기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학교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탈학문적 통합의 실현 방안과 교과 통합의 가치를 살펴보고, 과정중심평가에서 피드백 제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평가의 내용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블렌디드 러닝 및 플립드 러닝을 비교 정리한 후, 의사결정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학교 분위기 형성 방안을 살펴보았다. 위기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